

군산시, 경제 활성화 대책 ‘시동’

군산시의회, 원포인트 임시회의 통해 1조6775억2311만원 추가예산 확정
군산사랑상품권 추가 발행 · 소상공인 임대료 지원 등 지역경제 탄력 ‘기대’

군산시의회가 제270회 임시회에서 추가경정예산을 통과시키면서, 군산시의 지역 소비진작 및 내수경제 활성화 대책이 탄력을 받을 것으로 보인다.

지난 7일 군산시의회는 시가 요구한 올 분예산 대비 228억4971만원(1.38%)이 증액된 1조6775억2311만원을 확정했다.

이 중 일반회계 세입 예산은 △국·도비 보조금 19억원 △순세계잉여금 19억원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용자금 200억원이다.

반면 세출 예산은 △군산사랑상품권

발행·운영사업 114억 원 △군산사랑상품권 추가 인센티브 지원사업 100억 원 △영세소상공인 임대료 지원사업 24억 원 △영세소상공인 카드수수료 지원사업 5억 원 △소상공인 특례보증 지원사업 5억원 △소상공인 특례보증 지원사업 이차보전 지원 4억 원 등으로 짜여졌다.

향후 세출 예산은 군산시가 추진하는 총 5개의 민생경제 회복 사업에 투입될 계획이다.

특히 군산사랑상품권은 △발행액 3,000억 원에서 4,000억 원으로 확대 △월 구매 한도 40만 원에서 50만 원

으로 상향 △모바일·카드 상품권 결제액의 10%를 캐시백으로 즉시 적립 (월 최대 2만 원)할 수 있게 해 시민들이 직접적인 혜택을 볼 수 있도록 했다.

시에서는 이를 바탕으로 3월까지 군산사랑상품권 1,000억 원 전액 판매를 목표로 잡았으며, 관련 소비 촉진 홍보도 진행할 예정이다. 이외에도 △온누리상품권 사용처(품목형 상점가) 발굴 및 확대 △소상공인 지원사업(임대료, 카드수수료, 용자금지원) 신속 추진 등 추가 사업에도 속도를 내고 있다.

/군산=이재춘 기자



익산시, 강설 속 피해 최소화 ‘총력전’

제설 장비 13대 동원... 주요 취약 구간 등 24곳 제설작업 실시

익산시가 폭설로 인한 교통대란 등 큰 피해를 막기 위해 재난안전대책본부를 가동하는 등 긴급 대응에 나섰다.

시는 지난 7일 오후 7시 30분 대설주의보가 발효됨에 따라 곧바로 재난안전대책본부 비상 1단계(104명 비상근무)를 소집하고, 제설작업에 가동 행정력을 모두 집중했다고 8일 밝혔다.

지난 6일부터 이날 오전 9시까지 익산에 내린 평균 적설량은 7.2cm로 집계됐다.

오산면(11.4cm)과 동산동(10.3cm), 춘포면(10cm), 영등2동(9.4cm), 황등면(9.4cm)에 많은 양의 눈이 내렸다.

시는 대설 예비특보가 나온 전날 오후 4시 상황판단회의를 개최했다. 이를 바탕으로 미리 준비한 제설 장비 13대와 제설제 등 자체 330톤을 동원해 24개 주요 도로 구간에 대한 제설작업을 실시했다.

특히 익산역 서부광장, 왕궁면 익산나들목(IC), 평화육교, 춘포면 금강교, 모현교 등 얼어붙은 주요 도로에 대한 조치를 서둘러 진행해 출근길 교통 혼잡을 예방했다.

시는 시민 피해 최소화를 위해 전광판과 재난 문자 등을 활용해 시민들에게 안전 상황을 안내하기도 했다.

시는 이어지는 한파 속 결빙에 대비하기 위해 취약 구간에 대한 제설작업을 추가적으로 실시할 방침이다.

정현을 익산시장은 “주말까지 대설과 한파가 이어질 것으로 예보된 만큼 시민 안전을 지키는 데 행정력을 집중하겠다”며 “축사나 비닐하우스, 약한 구조물이 붕괴될 가능성이 있는 만큼 시설물 피해 예방과 빙판길 안전사고에 유의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익산=이재춘 기자

익산시, 촘촘한 보건·의료 서비스 구축 나서

모아복합센터 건립... 결혼·출산·보육 통합 서비스 제공
의료전달체계 강화 · 농촌지역 의료기관 기능 심화 추진 등

익산시가 2025년 보건·의료분야 국가예산 136억원을 확보하며 시민의 건강한 삶을 위한 기반 마련에 나선다고 8일 밝혔다.

이번 예산은 빈틈없는 의료 서비스 제공과 시민의 건강을 지키기 위한 다양한 사업에 사용될 예정이다.

올해 주요 사업으로 △모아복합센터 건립 △공공야간·심야약국 운영 지원 △농어촌 보건소 이전·신축 △공공건축물 그린 리모델링 △모기 발생 감시 장비 설치 등이 포함된다.

모아복합센터는 그동안 개별적으로 제공됐던 결혼·임신·출산·보육 기능을 한데 모아 공백없는 통합 서비스가 제공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시설이

다. 행정안전부 공모사업 선정을 통해 특별교부세 36억 원을 확보했으며 지하 1층~지상 4층, 연면적 990㎡ 규모로 건립될 예정이다.

센터는 △난임부부·맘스 클리닉 △찾아가는 생애초기 건강관리 지원센터 △아픈아이 돌봄센터 △아이발달 지원센터 △육아 대디(daddy) 센터 등이 설치돼 돌봄 공백을 해소하는 등 아이를 양육하는 부모에게 실질적인 지원을 제공할 예정이다.

시는 올해 의료전달체계 강화에도 힘쓴다. 원광대병원과 익산병원 응급실 전담 인력 보조금을 지원해 중증 환자들이 신속하게 치료받을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한다. 또한 공공야간·심

야약국을 운영해 늦은 시각에도 시민이 약사의 복약지도를 받아 안전하게 의약품을 복용하도록 한다.

아울러 시는 농촌지역 의료기관 기능 심화에 나선다. 우선 황등 보건지소를 건강증진형으로 전환해 주민 맞춤형 건강 프로그램을 운영한다. 용안·용동·삼기 보건지소는 공공건축물 그린리모델링을 통해 더욱 쾌적하게 환경을 정비하고, 이와 함께 노후된 보건 의료 장비를 교체해 시민 만족도를 높일 예정이다.

감염병 예방·관리에도 적극 대응한다. 시는 올해 질병관리청 공모에 선정되며 국비 지원을 받아 9개소에 모기 발생 감시 장비를 설치한다. 시는 수집된 모기 발생 정보를 과학적으로 분석하고, 체계적인 방제활동을 진행해 관련 감염병을 예방한다는 방침이다.

/익산=이재춘 기자

익산시의회 이종선 의원, 익산 2공단 입주업체 애로사항 청취 간담회

익산시의회 이종선 의원(보건복지위원회, 중앙·평화·인화·마동)이 지난 7일 익산2공단에 입주해 있는 일흥합성공업(주) 관계자와 공단 입주 환경개선을 위한 애로사항 청취 간담회를 가졌다.

현재 익산 2공단은 인도 보도블럭 파손과 버스노선 부족으로 이용자들이 불편을 호소하고 있으며, 하수구 범람, 쓰레기 무단투기, 공원관리 부실로 우범지대로 전락하고 있어 환경개선이 시급한 상황이다.

일흥합성공업(주) 관계자는 “익산 2



공단 환경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관리주체를 확인하려 했지만 확인이 되지 않았다”며 “폐적인 공단 환경조성을 위해 환경정비 관리주체가 명확해지길 바란다”고 말했다.

이에 이종선 의원은 “일하기 좋은 익산시를 만들기 위해서 익산시 입주 기업들의 주변 환경조성도 중요하므로 관리주체 또한 기업들에게 공지하

여 환경정비를 위한 노력이 필요하다”고 말하며 “익산 2공단에 입주하는 기업을 늘리기 위한 일환으로 공단 주변의 환경을 개선할 수 있도록 관련사항을 위해 지속적으로 확인하겠다”고 밝혔다.

시 관계자는 “익산제2일반산업단지의 노후화된 기반시설 및 환경개선 필요성을 인지하고 관련 사항을 해결하기 위해 익산제2일반산업단지 재생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며 시설관리부와 협의하여 깨끗하고 쾌적한 산업단지 유지관리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답했다.

/익산=이재춘 기자

군산시, 대설·한파 속 ‘시민 안전 지키기’

재난안전문자 발송 · 이면도로 제설작업 등 선제 대응 총력

전북에 9일까지 최대 40cm가 넘는 폭설이 예보되면서 군산시 재난안전본부가 24시간 대응 체계로 전환, 시민 안전을 위한 총력전에 들어갔다.

현재 군산시는 대설경보에서 대설주의보로 하향 조정되었으며 8일 오전 8시 군산시 평균 적설량은 13cm를 기록했다.

가장 많은 눈이 내린 곳은 회현면으로 19.1cm로 나타났으며, 옥산면(17.4cm), 옥구읍(16.9cm), 대야면(14.9cm), 조촌동(14.8cm)이 뒤를 이었다.

시는 지난 7일 오전 10시 대설주의보가 발효된 즉시 재난안전대책본부 비상 1단계를 가동하며 강임준 시장을 비롯한 전 직원이 선제적 대응에 나섰고, 즉시 시민들에게 재난안전문자를 발송했다.

이후 8일 오전 2시 30분 대설경보가 발효되면서 긴급대책회의를 개최하고 △시내 주요도로 제설작업 현황 및 도로 순찰 △노후주택 등 적설취약 구조물 및 공동주택 공사 현장 안전관리 △역전, 명산, 신영시장 아케이드 보수 및 시설물 점검 △시설하우스, 노후 축사 등에 대한 사전 대책 △육육상 수상양식시설 안전관리 추진 △한파 취약계층 및 한파 대비시설 안전관리 등 세부사항을 지시했다.

군산시 관계자는 “다행히도 현재까지 시에 접수된 피해나 시민들의 민원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라면서도 “앞으로 폭설이 예고되어 있는만큼 기상 동향 주시 및 노면 순찰 등을 통해 시민들의 불편을 최소화 할 계획이다.”라고 밝혔다.

/군산=이재춘 기자

지역 소식 통



익산시 평생학습 프로그램
겨울학기 운영 · 선착순 모집

익산시는 오는 9일부터 15일까지 평생학습 프로그램인 ‘겨울학기’ 참여자를 모집한다고 8일 밝혔다.

익산시평생학습관은 1월 20일부터 2월 14일까지 ‘겨울학기’를 운영한다. 시민 참여를 확대하고 다양한 분야의 자기계발 기회를 제공하고자 △직업능력 △문화예술 △인문교양 △시민교육 △원데이특강 등 5개 분야 12개 프로그램을 준비했다.

익산시민은 누구나 참여할 수 있고 익산시평생학습관 누리집(iksan.go.kr/llh)에서 선착순으로 모집한다. 더욱 자세한 내용은 익산시평생학습관 누리집을 참고하거나 전화(063-859-5827)로 문의하면 된다.

한인정 교육청소년과장은 “이번 겨울학기는 인문교양부터 중년 챗GPT 교육까지 다양하게 마련했다”며 “시민이 지식과 심리·정서적 부분을 채우는 평생교육 운영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익산=이재춘 기자

2025년 군산형 가사서비스
지원사업 의견 조사 실시

군산시가 임산부, 맞벌이 등의 세대에 일·쉼·삶의 균형을 위해 2025년부터 추진할 군산형 가사서비스 지원사업에 대한 의견 조사를 실시한다. 조사 기간은 1월 8일부터 17일까지 10일 동안이다.

주요 조사 항목은 △사업 시행 시 이용 의향 △지원 대상 기준 적정성 △지원 적정 횟수 등이 다. 시는 이 외에도 인구정책 관련하여 다양한 의견을 수렴할 계획이다.

참여 방법은 군산시청 누리집, 블로그 등 사회관계망서비스를 통해 QR 부호(코드)에 접속하면 되고, 설문조사 기간 내 행정복지센터나 보건소, 도서관 등 방문을 통한 서면 설문조사도 함께 진행한다. 시는 온라인 참여자 중 50명을 추첨해 모바일 설문권도 증정할 방침이다.

/군산=이재춘 기자

전북의 역사·문화 유산

일제강점기 수탈의 상징

구 군산세관 본관

국가지정 사적 제545호인 구 군산세관 본관은 1908년 단층으로 지은 건물이다. 이 건물은 군산항을 통해 드나들던 물품의 관세를 거두었던 곳이다. 1899년 군산항을 개방한 이후 인천세관 관할에 있던 군산세관은 1906년 인천세관 군산지사를 설립한 이후 이 건물을 완공했다. 붉은 벽돌을 사용해 건물의 외관을 꾸미고 목조를 사용, 내부를 장식했으며, 또한 슬레이트와 동판으로 지붕을 만들고 그 위에 세 개의 뾰족한 탑을 세웠다. 구 군산세관 본관은 건축사적으로 의미가 있는 곳일 뿐만 아니라 국창지대인 호남지방의 곡물을 수탈하는 역사적인 현상이었다는 점에서 후대에게 교훈을 주는 곳이다.

전주매일 캠페인